

아파트 하자 고통 끝...품질검수단 출범

광주시 전문가 60명 위촉

입주민과 함께 점검 활동 시작

새아파트에 입주하고도 물이 새거나 욕조 타일이 떨어지는 등 잦은 하자가 발생해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하자 보수가 생겨도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하거나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가 광주지역 공동주택의 시

공상태를 점검하고 주민 자문에 응하는 품질검수단이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이 품질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건축·토목·전기·통신 등 분야별 특급건설기술자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새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입기는 지난 15일부터 2021년 1월14일까지 2년이며, 건축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세대 내부와 공동주택

외부 공용부분, 주차장시설, 조정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품질검수 대상은 사업 승인된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중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공동주택이다.

품질검수단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남구 임암동 1164세대와 광산구 쌍암동 1111세대의 공동주택을 입주 예정자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와 시공

사간 공사품질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을 위해 향후 품질검수에 입주 예정자들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입주 후 겪게 되는 하자보수의 고통을 줄이고 시공사도 더욱 철저하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구, 주민들 응급처치 능력 키운다

전남대병원과 심폐소생술·인명 구조술 등 교육

광주시 남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응급처치 교육은 3월 14일과 6월 20일, 9월 19일, 11월 5일에 남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방법,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한 기본인명 구조술 등을 배우게 된다. 10세 이상 청소년 및 주

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우선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각 기수별 모집 정원은 50명이다.

교육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보건행정과(062-607-4351)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져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겨울철 도로 정비...포트홀 120번으로 신고하세요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파손된 도로 등을 정비하는 등 겨울철 도로 관리에 나선다. 시는 겨울철 도로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도로파손(포트홀)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건설본부, 5개 자치구 등 14개반 46명으로 보수반을 편성해 도로 긴급 복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부터 1485포대의 아스콘을 투입해 파손된 도로 894곳을 정비하고, 앞

으로 도로파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매일 도로를 순찰하면서 발견 즉시 보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905개 노선에 1706km에 달하는 관내 도로를 모두 확인하고 있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포트홀을 발견하면 전화(120)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등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경제재단체연협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경제재단체연협회'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나기수 회장,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등 내빈들과 축하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시소방본부 '재난 없는 광주 만들기' 총력

현장 부족인력 97명 우선 충원

빅데이터 분석 재난 선제 대응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재난과 사고 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제천·밀양 화재, 고양저유소, KT 지하구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높아진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장 부족 인력 259명의 보강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97명을 우선 충원했으며, 2022년까지 162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52명이었던 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2022년에는 938명까지 떨어져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또 현장중심 근무체제 운영으로 재난대응력이 한층 강화된다. 현장활동에

필요한 최소 전술단위 팀을 구성, 일체적인 진압 활동과 신속한 인명구조로 소방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고 역할 분담으로 구급대원의 폭행사고 발생 저감, 응급환자의 소생을 향상 등이 기대된다.

대형화재 참사 방지와 적극적인 시민 생명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안전교육 등 시민 중심 정책도 확대 실시한다.

특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은 시민 설치단을 활용해 1만1337가구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

이 밖에도 생활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최초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 실시율과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으로 재난유형과 원인, 발생지역 및 시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해 다양·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서구 청사내 카페서 머그컵 쓰기 캠페인

광주시 서구가 지난 16일 청사 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NO 머그컵OK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다 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은 청사 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직원과 주민들에게 주문한 음료를 머그컵에 담아서 증정하는 이벤트와 일회용품 없는 사무환경 만들기 서명운

동으로 진행했다.

서구는 지속적으로 커피전문점 등을 방문해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고 매장 내 부착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360-7323)에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동구, 지역밀착 생활 SOC사업 발굴 보고회

광주시 동구는 "지난 16일 정부핵심과제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 도서관·가상현실체험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가상현실(VR) 체험관 설치 ▲어린이박물관 건립 ▲시니어 활력충전소 건립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57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21건 ▲지역관광인프라 확충 5건 ▲취약지역 도시재생 8건 ▲복지시설 기능보강 8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8건 ▲미세먼지 대응강화 6건 ▲신재생에너지 시설확충 1건 등이다.

동구는 앞으로 생활SOC사업 공모를 위한 전담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주민 등이 참여한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공모사업 선정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선별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정부 10대 분야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은 문화·체육시설 및 관광인프라 확충 등 여가·건강 활동 분야에 1조7000억원, 취약지역 도시재생 및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활력 분야에 3조5000억원, 생활안전·환경 분야에 3조4000억원 등 총 8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북구, 25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 북구가 오는 25일까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북구는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3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11개 수행기관에서 47개 사업단을 구성해 지난해 대비 1137명이 늘어난 47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시정형은 만 60세 이상)이며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을 준비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의 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참여자 선발은 수행기관에서 선발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여 2월말까지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 062-410-6350. /김용희 기자 kimyh@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2억(평당 75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 010.3605.5000

